

中共의 對內革命路線에 對한 開放化政策의 衝擊

薩 公 強

- | | |
|----------------------------|----------------------|
| I. 序 論 | IV. 私有意識의 公有制에 對한 衝擊 |
| II. 마르크스-레닌주의에 對한 理性主義의 衝擊 | V. 社會氣風의 破壞와 黨의 腐化變質 |
| III. 共產主義에 對한 現實主義의 衝擊 | VI. 結 論 |

I. 序 論

中共이 70年代 末부터 推進하고 있는 對內體制改革, 對外開放政策은 中國대륙의 經濟, 社會生活 그리고 思想文化面에 舉世的인 큰 變化를 초래하고 있다. 對外開放과 對內改革은 不可分의 關係로서 본질적으로 兩面一體라 할 수 있다. 即 對外開放은 對內改革의 實行으로 保障받을 수 있고, 對內改革은 對外開放에 依해 維持된다. 그리고 그것의 總 목표는 四個現代化의 實現을 爲함이다. 따라서 開放政策이 中共의 對內革命路線에 對한 衝擊을 論할 때에는 對內改革政策을 離脫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충격은 다음 몇가지 方面에 나타나고 있다(경제方面은 다른 논문에서 검토).

II. 마르크스-레닌주의에 對한 理性主義의 衝擊

中國共產黨은 8년간에 걸친 抗日戰爭(1937~1945)과 戰後의 混亂한 局

勢를 利用하여 勢力을 擴大하였고 그후 몇년도 안되어서 大陸에서 政權을 탈취하였다. 이러한 시기적절한 인연(因緣)은 그들로 하여금 마르크스-레닌주의가 中國에서 勝利한 것으로 誤認케 하였고 그후 점차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中國전체국민의 사상을 指導하는 理論基礎’¹⁾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建國 30여년 이래의 역사는 무릇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착실히 준수한 時期에는 경제건설이 失敗했고, 국민들은 고생을 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違背했던 시기는 生産面이 發展되고 국민생활이 좋아졌던 것을 證明하고 있다. 예를들면 1958년부터 1960년까지의 「人民公社化」와 「大煉鋼鐵」(土俗의 製煉方法) 등과 1966년 5월부터 시작한 10년간의 「文化大革命」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毛澤東이 實踐中에 「群衆運動」과 「階級鬭爭」을 證明코저 企圖한 것이며, 그것은 비단 歷史發展을 推進하고 社會主義革命을 進行하는 유일한 動力일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建設을 進行하는 唯一한 動力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차례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이론에 의해 작성된 소위 「毛澤東式 테스트」는 모두 失敗하였고 終末을 告했던 것이다. 大陸國民들은 온갖 고생을 맛보았으며, 또 그들은 災難 가운데 敎育되었고 思索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8년부터 1976년까지의 19年동안,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單幹風(번역자 註: 1961年 중공은 農村人民公社 政策중 약간의 수정을 통해 농업, 어업 등에 個人經濟를 許可하는 政策을 수행했음)과 劉少奇의 修正主義 경제조정時期를 제외한 14年間은 毛澤東의 左傾路線으로 因해 大陸經濟는 엄중한 損失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確實히 路線錯誤였다. 어쩌서 制度的으로 이러한 災難을 防止하고, 制止하지 못하고 毛澤東이 病死한 後에야 비로소 이러한 悲劇이 발로되었을까? 大陸國民들은 中國에 있어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適用性에 對해 懷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對外開放政策은 어느정도 中共의 閉鎖된 愚民竹幕을 打開했으며 西方의

1) 毛澤東, 「中華人民共和國 第1期 全國人民代表大會 第1次 會議開幕辭」, 「人民日報」第1版, 1954. 9. 16.

현실사회에 대한 大陸國民들의 見識을 提高하여 그들의 안목을 넓혀 주었던 것이다. 이런 強烈한 對比에 直面한 중국 국민들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어찌하여 중국사람들을 牛馬보다 못한 生活로 몰아넣었으며, 부패하고 滅亡직전이라는 資本主義世界는 오히려 생기와 활력이 충만한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살고있는 노동자들이 현대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만이 表出되어 누릴 수 있다고 믿고있는 醫療保健·失業保險 등 기타 社會福祉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70년이 된 소련마저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조아 간에는 調和할 수 없는 敵對的 矛盾이 存在하며 프롤레타리아의 相對貧困化와 絶對貧困化라는 낡은 論調를 完全히 뒤엎은 것이다. 그래서 中共에 의해 줄곧 異端雅說視 되어왔던 西方 學術思想이 大陸의 知識界에서 날로 중시되고 있다. 社會科學者들은 바야흐로 과거 그들이 담당했던 비극적 역할, 즉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 관점으로서만이 經驗的 발전의 경제제도 혹은 現行政策의 正確性을 證明할 수 있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각종 社會現象과 경제문제를 보기 시작했고, 과거처럼 그렇게 完全히 黨의 原則에 지배를 받거나 共產主義 原典著作物에 속박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大陸國民들의 理性主義的 覺醒은 현재 강력한 힘을 形成하고 있어, 中共이 30여년간 苦心하여 만들어 낸 上層建築에 큰 충격과 動搖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中共은 億萬大衆의 理性主義 覺醒이 「우리의 思想을 指導하는 理論基礎」를 뒤엎은 것은 이러한 이성주의 자성을 官方에 끌어들여 有利하게 利用하는 것만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줄곧 마르크스-레닌주의 방패者라고 自處하던 中共은 약간의 覺醒의 行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中共은 1977년부터 78年 사이에 率先하여 毛澤東과 그 思想에 對해 批判을 展開하였고, 그후 작년말에는 「人民日報」에 「理論과 實際」라는 文章을

發表, 공공연히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이미 時期가 지나갔으며, “마르크스-레닌의 當時의 著作으로서 目前의 문제를 解決하려고 要求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날 「人民日報」는 訂正란을 통해 「目前의 문제」라는 字句를 「目前의 모든 문제」라고 訂正한 바 있음)²⁾ 작년 10月 20日 中共 제 12기 3중전회의에서 「經濟體制改革에 關한 決定」이 통과된 이후, 中共은 이론적 혹은 행동적으로 마치 突破口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 바, 다시는 낡아 빠지고 전통적인 사회주의 觀念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성질을 띠고있는 商品經濟를 社會主義 經濟의 活性化와 富國의 靈丹妙藥으로 삼고,

(2) 本來 社會主義 改造對象이었던 個體經濟와 消滅되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경계를 「社會主義 經濟의 必要와 有益한 補充」으로 삼고 그것을 부추리고 잘 추진키로 한다.³⁾

(3) 利潤으로 生産促進을 격려하고, 市場調節로서 計劃經濟의 缺點과 失敗를 바로 잡는다.

(4) 對內的으로 雇用制를 許可하고 對外的으로는 勞務를 수출하며, 과학 기술 교류를 거행하여 과학연구의 성과를 賣買한다. 노동을 통한 體力支出과 精神勞動支出을 모두 商品化한다.

(5) 外國에서는 債券을 發行하고 國內에서는 金融債券을 발행하며 株式社會를 設立한다.

(6) 社會主義의 國境안에 治外法權이 없는 租界형식의 經濟特區를 개설한다.

(7) 淸時代의 通商港口 개설을 모방한 14개 沿岸都市를 開放하여 外資 導入을 적극 추진한다.

2) 人民日報 評論員, “理論과 實際”, 「人民日報」第1版, 1984. 12. 7.

3) 中共 中央, “經濟體制改革에 關한 決定”, 「人民日報」, 第2~3版, 1984. 12. 21.

(8) 外國商社의 投資를 許可하여 中外合資會社 혹은 外國商社 단독투자 형식의 企業을 만든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中共의 「覺醒」과 大陸億萬大衆의 「理性的 覺醒」을 같이 論할 수는 없다는 것인 바, 兩者間에는 본질적인 區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적할 것은 中共은 여전히 마르크스를 그들의 精神的인 敎皇으로 信奉하고 있으며 그의 敎皇에 歸依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共은 단지 현실과 理論에 있어서 矛盾이 발생하여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만 비로소 부득불 理論에 對해 모종의 새로운 해석과 修正을 加하고 있다. 또 그것으로 群衆을 迷惑케 하여 軍중의 理性的 覺醒을 黨의 利益에 부합되고 政權의 分裂危機를 막는 方向으로 誘導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共產黨의 領導, 프롤레타리아 독재 및 자본주의의 消滅論 등은 아직도 전세계 공산당의 공동의 最高 信念인 바, 中共은 절대로 이러한 信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胡耀邦은 금년 8月 11日 講話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즉 “우리는 반드시 四個基本原則을 堅持해야 하며 시종일관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대한 공산주의 理想과 현실적인 분투목표를 굳게 결합시켜야만 한다.”⁴⁾

솔직히 말하면 中共의 對마르크스-레닌주의 비판은 古參 수정주의國家인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나 후르시초프까지도 감히 거론하지 못했던 것이다. 4천여만명의 黨員을 보유하고 있는 中共은 國際共產主義運動과 事業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中共의 一舉手一投足은 전세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 強烈한 反響과 深遠한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중공이 발표한 「理論과 實際」라는 文章을 마르크스주의의 이데올로기 「宗教革命」이라고 보는 것은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선전도구는 中共이 掌握하고 있어 億萬大衆의 理性主義覺醒은 중공의 새로운 해석과 수정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아직 뚫지 못하고

4) 胡耀邦, “當代 年少한 知識份子의 成長의 길”, 「人民日報」第1版, 1985. 8. 12.

있기 때문이다.

Ⅲ. 共產主義에 대한 現實主義의 衝擊

공산주의자들은 社會意識을 社會存在의 反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는 전체 大陸社會를 하나의 경직되고 고정적인 패턴으로 만들고 指令式 생산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思惟活動에 있어 被動的이고 무조건 복종한다는 식으로 습관화되어 주동적이고 創造的 活動을 저해할 뿐이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자취에 의해 이미 부정되었던 「宿命論」은 또다시 「계급분석」, 「계급분석」이라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해 부활되고, 「모든 것을 黨의 안배에 따른다」, 「黨이 指向하는 곳을 향하여 매진한다」, 「黨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정치사상교육은 개인의 이상과 포부를 말살하여 個人 自身이 자기의 운명을 掌握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정치운동으로 인해 원래부터 삭막하고 무정한 人間關係에 한층 더 시기(猜忌)하고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경제면에 있어서는 「低消費」·「鐵飯碗」(기술이나 전문가를 우대하지 않는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것)·「吃大鍋飯」(나누어 먹기식)式的 作態로 사람들은 자기의 勞動效率과 成果에 무관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극적이고 태만하고 산만한 사회기풍이 助長되었다.

그러나 대외개방·대내활성화·상품경제의 발전은 農村과 農村間, 都市와 都市間, 都市와 農村間에 있어 交流를 促進시켰고 농민과 농민간, 노동자와 노동자간, 知識分子間, 그리고 그들 相互間의 交流와 往來를 증진시켰으며, 沿海都市와 內陸 變방지역간의 交通을 강화시켰다. 또 中國大陸과 西方世界間의 往來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외에 원활한 정보의 傳播과 資金의 流通등을 가져왔다. 自主權의 擴大, 下放 및 經營權의 獲得에 따라 廣大한 농민과 工商企業은 市場의 수요공급의 變化에 關心을 갖기 시작했으며, 利潤의 寡多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鄉과 鎮에서와 小都市

에서의 企業의 興起·第3產業의 발달 등은 就業單位와 기회를 증가시켰다. 젊은 세대들은 自身の 노력과 才智로써 創業致富의 길을 뚫을 수 있게 되었고 自身の 生活와 운명을 과거와는 달리 스스로 安排할 수 있게 됐다. 商品生産과 流通에서 과거의 침울·停滯·硬直국면을打破했고 全體社會를 급속도로 變化시켰다. 이것은 中共이 大陸을 통치한지 30여년동안 未曾有의 現象이며, 또한 市場經濟의 萌芽라 할 수 있다. 더우기 그것은 자본주의의 强대하고 活力的인 좋은 表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大陸은 결국 社會主義國家이다. 商品生産이라는 것은 단지 경제의 活性化, 生産力 저하, 과학기술의 낙후, 民窮國貧을 解決하기 爲한 하나의 手段에 불과한 것이며, 社會主義制度의 特徵인 計劃管理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한편으로 計劃經濟를 保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市場經濟를 발전시키고 있다. 즉 그들은 「管理」와 「活性化」라는 兩者間에서 出路를 찾고 있으며 소위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건설하고 있다. 동시에 中央集權의 計劃管理體制와 自由로운 市場機能에는 본질적인 差別이 있어 中共으로 하여금 이 두가지 모두 돌볼 겨를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변화무쌍한 政策의 轉換, 即 緊(緊), 조이고(緊), 활성화하고(活), 늦추고(放)하는 政策의 연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애매모호한 감정을 유발시켰고 現實에 대해 방황케 하였다. 그들은 進就의 未來指向 보다는 차라리 今日의 만족을 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움 속의 하루는 내일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大陸國民들은 이미 공산주의 建設計划에 헌신한다는 情熱을 잃어버렸고 더우기 과거 雷鋒式(毛時代의 모범적 노력영웅이라고 칭송된 者)의 바보짓은 願치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급간부나 그 자녀들은 特權生活를 누리고 있는데 자 자기들만 苦行僧과 같은 고통을 받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陸國民들은 現實을 직시하고 생활개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언제 政策變化로 因한 苦難의 내일이 닥쳐올지 몰라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뿐이다.

Ⅳ. 私有意識의 公有制에 대한 衝擊

경직된 경제패턴과 끊임없는 정치운동 가운데 人間은 하나의 道具로서 存在한다. 自我意識은 질식되고 個性은 抑壓되고 있다. 그러나 大陸國民들은 「文革」의 고통과 近年의 서방문화 및 制度의 衝擊을 겪은 후 確實히 자아의식이 擡頭되기 시작했으며 個性의 解放을 爲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주요 表現이 「人間으로의 복귀」(還我爲人), 「人間다운 生活營爲」(被當人看)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이 希求하고 있다.

(1) 人間의 價值, 地位, 尊嚴의 肯定

(2) 과거와 같은 個人的 自由를 否定하고 個性을 말살하는 作態는 抑制 혹은 除去해야 함.

(3) 民主·自由·人權 및 法治面의 保障 要求

이상과 같이 나날이 密集되고 擴大되는 民主化의 洪水는 금후 中共의 制度와 統治面에 對해 威脅과 挑戰이 될 것은 確實하다 하겠다. 이러한 영향의 억제와 제거를 爲해 中共은 계속해서 「4個 堅持」를 재천명하고 있으며, 다시는 政治運動을 앞장다고 한 약속마저도 철회할 것을 不辭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계급의 자유화 경향反對」·「精神汚染除去運動」 및 「存在主義 哲學」·「現代主義」·「個人主義」등을 批判하는 運動을 前後하여 발동하고 있다. 그러나 每運動의 結果는 커다란 洪水에 依해 阻止되고 있으며, 運動의 旗幟는 折斷되고 있다. 그 原因은 어디있는가? 原來 自我意識은 바로 私有意識의 集中的인 表現이며, 私有意識의 擡頭는 바로 中共의 對內 活性化·對外開放의 必然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 土地의 私有用權은 토지의 집체소유라는 성질을 부차적인 地位로 退步시켰으며, 個人的 利益을 工作目標로 삼는 專門家戶나 個體家戶의 大量出現으로 나타났고, 私有意識은 한줄기 새롭고 正當하고 合理的인 社會

와 經濟潮流를 형성했다. 株式市場의 형성과 國營기업체의 雇用制 실시는 全民所有制의 全體意識에 對한 挑戰이되고 있다.⁵⁾

(2) 「政治于先」이 否定되고 있으며, 오히려 生産력 促進과 經濟活性化를 爲한 物質利益만이 강조되고 있다. 소위 物質利益이란 「利潤指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方針은 사유의식의 擴大와 強化를 더욱 助長시켰던 것이다.

(3) 商品經濟의 발전은 自由競爭式의 市場形態를 차츰 支配的 地位로 부상케 하였고, 私有意識은 이에 충분히 발휘되었다.

이로서 알 수 있듯이 자아의식의 대두와 中共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政策은 그 關係가 密接하다 하겠다. 자아의식을 불식시키려면 반드시 退步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後退政策의 수행은 中共政權에게 더 큰 危險負擔을 줄 것이다. 中共이 행할 수 있는 유일한 方法은 바로 집체주의적인 思想과 政治工作의 強化와 이미 經驗으로 事實證明된 效果없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선전과 說教뿐이다.

V. 社會氣風의 破壞와 黨의 腐化變質

全體 社會氣風의 破壞와 黨自體의 腐化變質은 前述한 3가지外에 가장 큰 충격이 되고 있다.

中共이 「對外開放·對內活性化」政策을 추진한 이래 「經濟效益」을 강구한다는 掩護아래 全中國大陸은 위에서 아래까지, 黨內에서 黨外에 이르기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致富의 열기가 가득차 있다. 모두들 千載一遇의 好機會를 이용하여 한밑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突出된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黨政機關이나 黨·政간부들은 權力을 이용한 從商行爲

5) 陳一戈, 葛蒲, 「中國社會의 第3次 浪潮」, 「九十年代」月刊, 1984年 12月號, p. 32, 香港, 臻善有限公司.

- (2) 國家的인 缺乏物資를 買占賣惜하는 行爲
- (3) 國家外貨의 投機·賣買行爲
- (4) 任意로 物價를 引上하고 각종 特權을 濫發하는 行爲
- (5) 不法的인 名目으로 金錢과 物資를 남발하는 行爲

(6) 形式主義와 誇張·誇示하는 風潮 등이다. 그중에 不法的인 名目으로 장려금과 實物을 남발하는 氣風이 신속히 蔓延되고 있고, 公務를 빙자하여 私利私慾을 取하고 있으며, 權力型 致富가 亂舞하고 있다.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것은 中共黨員, 특히 黨간부들이 違法行爲, 私利를 爲한 不正行爲, 뇌물 주고받기, 私利編取 買占賣惜, 密輸行爲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胡啓立은 금년 7월 13日「中指委」가 개최한「6省·區第2期 整黨工作匯報會」에서 改革과 開放政策 수행과 정가운데 일부 黨組織과 黨員들의 上記 不法行爲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胡啓立은 또 지적하기를,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서슴없이 허위보고로서 국가를 속이고 消費者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黨의 方針과 政策에 對해 각자가 必要한 만큼 取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리하면 執行하고 불리하면 실행치 않고 있으며, 심지어 黨方針과 政策을 歪曲하고 變改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위에는 政策이 있고 아래에는 對策이 있으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黨과 國家에 대처하고 있다.”라고 개탄한 바 있다.⁶⁾ 금년에 발각된 복건성 晉江의 가짜 藥事件, 한때 떠들썩했던 河南省 商水縣의 가짜 벌꿀사건과 海南島에서의 자동차 密輸事件, 巨額의 外貨投機사건등은 몇 개의 전형적인 예에 불과하다. 심지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支柱라는 人民解放軍도 이에 뒤질세라 從商行爲를 하거나 軍需의 便利를 利用, 다량의 密輸行爲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짧은 몇년동안의 社會氣風破壞는 실로 鄧小平의 「實務派」도 豫見치 못한 것이다.

毛澤東의 10年「文革」大災難은 本來의 소박성실하고 근면노력하는 社

6) 「人民日報」第1·4版, 1985. 7. 15.

會氣風을 破壞시켰고, 태만하고 불성실한 社會氣風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기풍이 비록 생산증가와 4개현대화 실현에 불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中共政權에 위협을 주지는 못했다. 현재 등소평이 추진하고 있는 體制改革, 對外開放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 體制改革 가운데 중공은 국영기업의 經濟效率을 높이고, 利益을 내야하며, 또한 企業의 利潤과 직공의 物質利益이 결합되기를 요구하면서,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져야만 전체 사회가 부유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그리하여 중공은 兩極分化로 發生한 「冒尖戶」, 「萬元戶」를 대중학습의 모범으로 삼았다. 이러한 中共의 대대적인 선전아래 현재의 중국대륙은 하루하루 지나면 그만이라는 침체되고 삭막한 현상이 깨끗이 불식되었고,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확실적인 목표가 환상적인 공산주의 천당이 아니라 순수하고 현실적인 世俗樂園이라는 것이다. 富를 추구하는 사회풍조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黨기구에 침투했으며, 당원이나 黨간부들의 부정행위는 나날이 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것은 深圳 경제특구가 가장 좋은 예인데, 深圳은 현재 密輸, 不法貨幣去來 및 기타경제사범의 중심이 되고 있다. 많은 당간부들이 이곳에서 치부하는 요령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등소평은 深圳地區에 대해 골치를 앓고 있으면서 “政策路線이 옳고 그른지는 두고 봐야 한다.”⁸⁾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 풍조는 처음부터 등소평파가 推進하던 經濟改革에 회의를 품고 있던 陳雲, 薄一波등에게 反對口實을 갖다 주었다. 陳雲은 今年 6月末 거행된 「中共整黨工作指導委員會」 석상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4개現代化를 하는 것이지 다른 현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풍조를 견결히 배척해야 하며, 黨의 整風을 일으켜야 한다. 공산주의 理想과 도덕을 위반하는 모든 착오와 言行에 대해 鬭爭을 展開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薄一波도 동회의에서 “商品交換原則이 이미 우리의 黨

7) 同註 3), 第1版.

8) 「人民日報」第1版, 1985. 6. 30.

政機關 政治生活에 浸透하여 「金錢萬能」觀念과 「拜金主義」사조가 바야흐로 우리 간부들을 腐敗시키고 있다.”⁹⁾라고 주장했다. 그 이후 鄧小平은 外賓接見時 여러차례 겸손한 태도로써 “현재의 經濟體制改革은 단지 하나의 테스트이며 성공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社會氣風의 破壞와 黨·政간부들의 상호 뇌물공여 및 受賂문제가 改革의 발걸음을 늦출뿐만 아니라 黨內的 「實務派」·「懷疑派」·「凡是派」·「保守派」간에 모순과 鬭爭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鄧小平이 改革을 늦추고 後退할 것인가? 대답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 3가지 원인 때문이다. 즉,

(1) 經濟體制改革은 급박한 情勢로 인해 產出된 것인바, 改革을 아니하지나 黨의 存立에 危險이 따르고, 改革을 하자니 混亂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鄧小平의 「實務派」도 이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利害得失을 저울질한 후, 역시 모험이 따르더라도 이 길을 擇했던 것이다. 그래서 改革工作도 6~7년에 걸친 政治·思想·組織등 각 方面의 準備後에야 行되었던 것이며, 鄧小平은 이에 대해 큰 信念과 決心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의 全政治生命을 걸고 있다. 그래서 鄧은 결코 同改革을 中도에 廢棄하지 않을 것이다.

(2) 體制自體의 內部 矛盾과 改革過程中的 문제점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前者는 本質이요, 後者는 표면적인 現象이다. 만약 현실을 본질로 삼는다면 적대감정이 擴大될 것이고, 本質을 현상으로 삼는다면 敵對감정에 대한 계산부족을 초래할 것인바, 兩者 모두 判斷錯誤를 導致할 수 있다. 體制自體의 문제는 政策方針의 改變을 通해 해결될 수 있으며, 진행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점차 自然히 低下될 것이다. 社會氣風의 破壞와 黨의 부화변질은 現단계에 아직은 「量」의 變化에 있으며, 「質」의 變化에 도달치 못했을 때에는 그것은 여전히 現象의 문제로서 「本質」면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 同註 8).

(3) 만일 현재 급브레이크를 걸면 반드시 大陸內部가 큰 混亂이 일어날 추세에 있다. 이것은 改革速度를 비교적 완만하게 하고 신중하고 온건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물며 改革이란 현재 사회주의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大陸國民들의 염원인 바 등소평으로서도 감히 대규모의 退却路線은 取하지 못할 것이다.

事實이 증명하듯 등소평은 결코 後退하지 않고 있으며 改革構想을 拋棄 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 최근에 들어와 鄧·胡·趙 3인은 많은 중요회의에서 아무 꺼리낌없이 계속해서 경제체제개혁의 중요성과 관철의지를 재표명하고 있으며, 그들은 두가지 路線에 있어서의 配置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경제노선에서는 改革의 순리적 진행을 위해 온갖 불명불만을 감소시키고 있다. 鄧小平 改革派는 현재 신중하고 온건한 方針으로 局部的인 문제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책략적인 退却措置를 취하고 있는 바, 예를들면 국가 기본 건설항목을 抑制하고 對外開放都市를 감소하고 있는 등이다.

둘째, 정치노선에 있어서는 등소평이 지난 7월 6일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면담시 말한 것처럼 간부의 年少化를 전략적인 決策으로 제출했다는 점이다. 그는 “간부의 점진적 年少化는 우리의 戰略的 決策이다. 군인을 포함한 모든 간부는 年少化를 實現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中共의 간부 年少化와 知識化는 생산력을 제고하고 4개현대화를 實現키 爲해 제출된 客觀的인 需要이다. 鄧小平은 주장하기를 “현재 우리는 두가지 면에서 중요한 改革을 해야한다. 하나는 간부의 年少化이고 또 하나는 경제체제의 改革인데 이 두가지 모두 중요하나 간부의 年少化가 더욱 중요하다. 간부의 연소화는 간부의 知識化를 包含하여 정력이 넘쳐 호르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간부로서만이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태산같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바로 關鍵이다.”¹⁰⁾라고 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등소평이 과거 여러차례 강

조한 바의 「知識을 尊重하고, 人才를 尊重하자」라는 관점을 재천명한 것에 불과하나 문제는 鄧小平이 陳雲과 薄一派로부터 攻擊받은지 몇일 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鄧小平의 鬭爭藝術과 능수능란함을 잘 표현한 것이다.

近年에 들어와 허다한 사실이 증명하듯이 中共經濟改革의 최대장애는 바로 黨內 高位屬의 「懷疑派」·「保守派」·「反對派」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改革중에 발생하는 각종 不正行爲 또한 고위 간부나 자녀들, 친척들의 權力濫用으로부터 오고있다. 그래서 鄧小平이 간부의 年少化를 현재 추진 중인 兩大改革의 하나로 삼는 것은 바로 「懷疑派」에 대한 강력한 反擊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격에 당면한 「懷疑派」는 단지 꿀먹은 벼어리처럼 얄전하게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화가 나도 감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文革」에 의지하여 출세하고 또 改革派의 최대 적수인 李德生이 下野했고, 「懷疑派」 휘하의 맹장이며 「精神污染運動」의 선봉장이었던 鄧力群 또한 해직당한 것은 좋은 예라할 수 있다.

鄧小平은 바로 이러한 幹部의 年少化라는 政策을 가속화하여 年老한 懷疑派와 改革推進에 방해가 되는 黨간부들을 바꾸어 버리고, 자기 심복을 심었으며, 그것을 통해 금후 改革의 순리적 추진의 길을 닦아 놓았다. 이것이 鄧小平이 組織面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인 바. 그는 금년 9월 급작스럽게 中共「第12期 4中全會」를 소집, 組織面에 있어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構築했던 것이다. 이 회의에서 鄧小平은 단번에 65명의 「中央委員」과 67명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 및 「중앙고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3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10명의 政治局員을 權力核心에서 밀어냈던 것이다. 鄧小平이 이러한 政治戰線上的 勝利로 흥분한 나머지 또다시 經濟改革에 있어서 모험적인 錯誤의 前轍을 밟고 재차 被動的인 困境에 빠질런지는 현재로서는 豫測하기 어렵다 하겠다.

10) 「人民日報」第1版 1985. 7. 7.

Ⅴ. 結 論

中共의 開放政策은 서방의 정치제도와 民主思想을 中國大陸에 轉入시키며 中共政權體制와 독재제도에 대해 衝擊을 일으키고 있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경제기초의 改革은 「상부구조」의 相應的 變革을 必然的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못할 때 經濟基礎는 上部構造의 支持基盤喪失로 因해 崩壞되고 瓦解된다. 근년에 들어와 中共은 이 方面에 있어 地方級과 教育部門·國營企業體중에서 部分的인 選舉를 실시한 外에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 4月 中共의 「마르크스주의 毛澤東思想研究所」 責任者인 蘇紹智는 訪美活動時에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즉, “中共은 省級과 中央級에서도 選舉를 실시하여 民主化를 擴大할 意向이 있다. 만약 政治改革이 없으면 經濟改革의 추진은 극히 困難하다. 따라서 中共은 地方選舉를 省級과 中央級으로 擴大코자 計劃하고 있다.”¹¹⁾ 蘇紹智의 上記 설명이 言論에 迎合키 위한 것인지 혹은 確實히 그러한 覺悟가 있는지는 아직 判斷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 그러한 行動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其實, 民主·自由·法治가 存在치 않는 中國大陸에 설사 省級과 中央級에 선거를 실시한다해도 그것은 또 하나의 政治놀음 밖에는 아닐 것이다.

中共은 「教育體制改革에 關한 決定」가운데, “우리의 현재 임무는 高度의 文明的이고 高度의 民主的인 現代化의 社會主義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¹²⁾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中共은 教育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과학 기술과 경제체제의 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政治적으로 어떠한 改革이 있을런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確實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中共이 여전히 「4個堅持」를 拋棄하지 않는 狀況아래서 소위 고도의 「民生」이라는 것은 차라리 緣木求魚의 空談이라 할 수 밖에 없다.

11) Jonathan Kaufman, Globe Staff, “Economist Su Looking to Chart New Path for Marxism in China”, *Boston Globe*, April 26, 1985.

12) 中共 中央의 “教育體制改革에 關한 決定”, 「人民日報」, 第1版, 1985. 5. 29.